

식당 알선료에 가격 뛰고 음식 질 저하...부끄러운 '맛의 도시'

긴급 진단-맛의 도시 목포

목포가 명실공히 맛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복합이 먼저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달 12일 '맛의 도시 목포 선포식'과 19일 '해상케이블카 개통' 등 1000만 관광객 시대를 견인할 대형 프로젝트가 채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이대론 안 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1000만 관광객 유치의 성패는 음식(맛)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사실상 '음식문화 혁명'을 언급하며 공직자들을 향해 강력한 의식 제우장을 주문하는 쓴 소리를 쏟아냈다.

여기에 정순주 부시장도 '전 직원 음식점 견문 통보제'라는 고전적 카드까지 꺼내 드는 등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연초부터 대대적인 친절·질서·청결의 '목포사랑운동'을 펴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보건소의 시스템 부재가 가장 심각한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업소 특별점검, 위생·친절교육, 상인회 간담회 등과 같은 기존 방식만으로는 업주 마인드 변화와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 이유다.

따라서 치밀한 목표 설정과 실행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김 시장은 보건소 전 직원과 머리를 맞대고 격론을 벌이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놓았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보건소 직원이 먼저 변화해 상인들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복합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는 없다는 절박감을 상인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며 명확한 목표의식과 정확한 방향 설정을 주문했다.

또 단체 손님을 받기로 한 관광버스 기사의 노골적인 알선료(팁) 요구에 대한 보건소의 대책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관광버스기사 노골적 알선료 요구 4인 기준 12만~15만원 상 등장 결들인 반찬 국산 거의 없어

자정결의·교육만으론 해결 안 돼 "복합이 변해야 목포가 산다" 강력한 제재·관리 시스템 필요



북항 회 센터의 한상 차림.

업계에 따르면 알선료는 20%가 보통이지만 일부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25~30%까지 지급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북항 지역에는 12만상, 15만상이 등장했다. 한 상(4인 기준)

준)에 12만원, 15만원이라는 얘기가. 알선료 지급이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음식점 신뢰도는 물론 목포 이미지 실추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데 있다.

하지만 보건소는 '자정노력 유도'와 지속적인 교육·간담회 실시'라는 해법은 방안만 내세울 뿐 뾰족한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알선료는 결들인 반찬(일명 쓰카다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가격대 대비 푸짐한 상차림을 선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단체손님을 받는 대다수 업소들이 쓰카다시를 일괄 납품받는다. 일괄 납품이 편리성은 있지만 불어빵처럼 찍어낸 반찬에 정성은 고사하고, 90%가 국산이 아니라는 게 논란거리다.

여기다 쓰카다시는 원산지표시 규정마저 적용받지 않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식탁에 한꺼번에 세팅되는 것이어서 고객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복합을 다녀간 중장년층 관광객들 사이에서 "결보기에 반찬 가짓수만 많지 실제로 젓가락이 가는 건 손에 짬 정도"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일부 손님들 사이에선 "낙지호랑이 마치 나일론처럼 질겼다"라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현재 북항 일대에는 회 센터 등 122개 업소가 밀집돼 있고 4개 상인회가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단체손님을 받을 수 있는 업소는 14개소로 3000명 규모다.

그동안 보건소가 다양한 강령·운전 책을 내놨지만 '약화'가 미치지 못한 이유로 상인회가 4개로 쪼개져 상인회별로 입장이 다른 동상이몽 탓에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는 점을 든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최우선적으로 이들을 하나로 묶는 데 전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에 보건소는 지난 5일 대형음식점 업주들과 함께 여수시와 사천시 등으로 친절선도업소 현장 벤치마킹을 다녀왔다.

또 4개 상인회의 화합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수렴해 노태자장을 개최하기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다 극단 갯돌에 의뢰해 친절과 고객행위·부담요금 근절을 내용으로 하는 연극과 길거리 공연을 선보이고, 복합 회타운 입구에 대형 양심저울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처방'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보건소의 '약발'이 먹혀들어 가지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더욱이 이에 대한 목포시의회의 시선도 좁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오수 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은 "알선료만큼 음식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다. 팁을 얹어 거나 반찬 가짓수를 줄여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상처받은 영광'만 남을 것"이라며 "복합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목포에 가면 음식이 값싸고 맛있고 친절하더라는 입소문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상인들 스스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모두 공멸한다는 공감대형성과 결연한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목포시장이나 시의회 의장 주도로 14개 대형음식점 업주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주문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북항 일대에는 회 센터 등 122개 업소가 밀집해 영업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단체손님을 받을 수 있는 업소는 14개소이며 한 번에 3000명 규모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목포시지부는 지난 8일 정기총회를 열고 1000만 관광객 맞이 위해 친절과 위생·청결·바가지요금 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목포시 제공>

연산동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에 서희건설 컨소시엄 선정

총 5043억원 투입

목포시 연산동 산정근린공원의 민간개발을 통한 대규모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됐다.

목포시는 11일 지난달 28일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산정근린공원의 민간

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서희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희건설 컨소시엄은 제안서를 통해 50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면적 중 78.1%

(36만8070㎡)의 공원부지에 산정하모니센터, 핑크가든, 숲속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1.9%

교 부지를 조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와 관련해 사전 타당성 검토와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과 함께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공공성이 최대한 확보된 최적의 안을 마련하고 올 9월까지 사업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공공성이 중요하다. 앞으로 다각도의 의견수렴과 신속한 행정 진행을 통해 공원 실효를 막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친환경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 노상적치물과 전쟁 선포

맛의 도시 선연 등 앞두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키로

목포시가 맛의 도시 목포 선연과 해상케이블카 개통 등 대형 프로젝트를 앞두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상적치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목포시 건설과는 민간용역팀까지 동원한 역대 최대 규모인 5개조 49명으로 특별 정비반을 편성했다.

시는 도로변 불법 광고물과 노상적치물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정비해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목포사랑운동과 연계해 대대적이고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4월까지 지속된다. 최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근대역사문화의 거리를 비롯해 목포역과 시외버스터

미널, 하당 장미의 거리, 전통시장 주변 등이 집중 정비 대상지역이다.

특히 일정기간 홍보를 거친 뒤 상가 앞에 진열된 물품과 주차 방지를 위해 내놓은 적치물 등은 전부 수거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해 간선도로에 대한 불법 주차차 단속이 심해지면 앞으로 이면도로 주차차 심해지고 주차 방해를 위해 골목길 상가나 집 앞 화분 등을 내놓은 극단 이기주의가 급증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목포시 건설과장은 "목포시의 단속보다는 시민 자발적 참여가 절실하다. 민원발생지역의 각 동 자생조직이 나서 청결 결의와 함께 스스로 정비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라며 목포사랑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수협 관계자가 위판된 대갈치를 들고 보이고 있다.

모처럼 씨알 굵은 조기·대갈치 풍어 목포수협 하루 위판액 9억 최고 기록

목포수협이 씨알이 굵은 조기와 대갈치로 하루 9억원의 최고 위판액을 기록했다.

그동안 목포 수역은 환경오염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어획량이 줄고, 조기와 갈치의 씨알이 작아졌다.

소비자들은 과거에 비해 작은 크기의 조기와 갈치를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하게 돼 수산물소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최근 목포수협은 조기, 갈치 위판에 씨알이 큰 조기와 대갈치의 풍어로 작년 역대 최고 위판고 달성에 이어서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 위판고가 30억원 이상 증가했다.

목포수협에 지난해 위판된 조기는 5000t(한 상자에 135미, 160미, 250미),

갈치는 4800t(한 상자에 40미 이상) 등으로 1835억원의 위판고를 올렸다.

목포수협은 큰 조기(한 상자 100미, 70미)와 대갈치(한 상자 10미, 5미) 풍어로 올해 위판고가 지난해 위판고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포수협관계자는 "그동안 어획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과 해양경찰·서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의 중국어선 단속, 그리고 생산어업인의 자정노력과 목포수협의 조업환경개선 지원 등의 결과이며, 큰 조기와 대갈치의 풍어는 생산어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만족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김준석 기자 kjs0533@kwangju.co.kr



목포수협 관계자가 위판된 대갈치를 들고 보이고 있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